

2017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라운드테이블 “동시대미술과 지역미술제의 방향”

2017.6.24(토), 14:00-17:30
대구예술발전소 커뮤니티 룸(5층)

2017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라운드테이블 “동시대미술과 지역미술제의 방향”

2017 강정 대구현대미술제의 전시 주제와 구성 전반을 관통하는 Key Word를 통하여 동시대미술의 이슈들을 조명하고, 지역미술제의 의미와 그 발전방향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

‘발제와 질의’ 형태의 일방적 전달방식이 아닌 Floor와 패널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는 열린 형식으로 심도 있고 실질적인 논의의 장.

[라운드테이블 진행 순서]

*모더레이터 : 김혜경(PIBI 갤러리 대표)

*사회 : 이가현(2017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큐레이터)

| 시간 | 내용 |
|-------------|--|
| 14:00~14:30 | 인사말 기조발제(안미희, 2017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
| 14:30~15:45 | 라운드테이블 남인숙(아방가르드), 고원석(콜라보레이션), 정현(공공성), 전리해(미래의기록), 강수정(지역성) |
| 15:45~16:00 | 휴식 |
| 16:00~16:30 | 주제토론 |
| 16:30~17:10 | Floor질의 및 자유토론 |
| 17:10~17:30 | 종합정리 |

강정, 미래의 기록 (A Statement of Continues Journey)

안미희(2017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예술감독)

강정 대구현대미술제가 열리는 강정보는 자연에 가까운 삶을 동경하는 도시인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안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한 여름 축제와도 같은 이 행사는 미술관 화이트큐브가 아닌, 자연을 배경 삼은 열린 공간에서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예술의 확장성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미술제입니다.

2017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강정, 미래의 기록>은 지난 5년 동안 축적 되었던 행사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대구현대미술과 더 나아가 한국현대미술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건축과 어우러진 다양한 동시대의 미술작품과 함께, 새로운 형식의 미디어 아트, 고정관념을 깨는 설치미술, 관객 참여미술, 강정의 자연과 장소를 소재로 만들어지는 실험예술작품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동시대미술과 함께 휴식과 여가를 즐기며 보다 가깝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서 강정 대구현대미술제가 기능하고 있음을 체험하고, 이런 경험들은 자연스럽게 현대예술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변화로 이어져 우리 삶과 예술의 교감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강정, 미래의 기록>은 한국현대미술사 내 강정이 위치하고 있는 중요성과 대구현대미술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미술제라는 본연의 태도를 소환합니다. 그리하여 이곳 강정에서 발화하는 다양한 동시대 현대미술의 언어와 문법이 지역미술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을 넘어 세계와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기록, 오늘의 아방가르드

남인숙(대구예술발전소 소장)

‘아방가르드’는 전통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재고되던 기술시대의 새로운 행위이자 언어이며, 격변하는 삶의 무대에서 예술이 취한 입장들 중 하나입니다.

역사에 남아 정리된 아방가르드[역사적 아방가르드]는 이미 깊이 있는 전문적 연구 성과가 있으므로 오늘의 토론에서는 전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구현대미술제’를 중심으로 그려 본 실험의 양상과 그 성과,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보다 체계적인 기록과 정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들어야 할 것 같고요, 이러한 여러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 강정현대미술제의 해석과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록’이라는 제명도 이런 사정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해보고 싶은 점은 오늘날 **우리시대의 아방가르드**는 어떤 문제를 떠맡아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방가르드를 실험예술이라 번역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개념을 정비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다소 포괄적이지만 그 의미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아방가르드가 표상하는 실험적인 가치랄까, 실험성이랄까, 그 **도전의 가치와 새로운 탐색**을 어디에서 물어보고 또 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상황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작업환경의 변화입니다. 뛰어난 기술과 매체의 진화가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예술가들의 작업환경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청각이나 촉각 등 감각의 혼용과 통합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드는 매체환경에서의 작업을 생각해봅니다.

둘째, 작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작가들의 개인적인 역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동력이나 결과물을 산업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경향, 즉 한 도시나 국가의 경제적 삶의 주요 동력이자 자원으로 예술 창작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국가나 관 주도의 환경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실험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작가 개인의 위상문제입니다. 경제인이자 생활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창작을 본업으로 삼아야 하는 작가 자신들의 환경, 이 양 측면이 그 어느 때보다 분열적인 방

식으로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의 추구하고 생활감정, 노동과 창작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야하는지에 대한 작가 자신의 문제와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앞에서 작가의 창작 열의와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예술이 지켜야하는 가치, 즉 새로운 언어를 개척하고(실험정신), 그 언어에 새롭고도 급진적인 시대의 상상력을 실어 놓는 일(실험정신의 구체화)은 여전히 예술의 책무이므로 창작자로서 예술가의 권리와 의무가 고대의 중책만큼이나 여전히 중대하다는데 고민의 핵심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미래가치는 공유자산을 늘이고, 개인적인 소비를 줄이면서도 경제적인 안정을 구가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서 실험적인 언어를 구사한다면 그 양상이 어떤 것이어야 하나 생각합니다. 막 쓰면서 향유를 구가하기 보다는 안 쓰면서 향유를 줄이는 삶의 방식이 우리시대의 미래가치라고 한다면, 미래에 기록될 오늘의 실험적 행위나 양상은 무엇이어야 할지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르테 포베라’는 되짚어 봐야 할 주요 가치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과거의 발굴이나 재해석을 통해 동시대의 담론을 채우려는 흐름을 보면 더욱 실험적인 예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구체성’ 속에 시대의 전형과 상상력이 담긴다는 한 예술철학자의 이야기를 새겨보며, 미래의 기록으로 남을 오늘날 실험이 무엇일지, 오늘 우리시대의 구체성을 담아낼 실험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미래의 기록>이 던지는 키워드, ‘아방가르드’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동시대 시각예술계의 풍경

고원석(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전통적으로 시각예술에서의 협업은 다른 예술 장르들에 비해 자주 활용되지 않았다. 회화나 조각 등 전통적인 시각예술 창작은 집단보다는 개인 창작의 형태로 시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미술사에서 거론되는 거장들의 대형 벽화 등의 경우는 집단 창작으로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거장의 이름으로만 남아있다.

모더니즘이 자리를 잡은 20세기에 이르면 집단에 의한 창작이 더 자주 시도된다. 미래파나 구성주의, 초현실주의 계열의 작가들은 전보다 더 공공연하게 공동 창작을 실행했다. 때문에 이 시기의 협업은 집단창작 또는 공동창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대 시각예술계에서 협업은 더 이상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시도되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오늘날 협업은 다수의 작가들에 의해서 수시로 행해지는 동시대 창작환경의 보편적인 현상 중 하나다. 다수의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결성과 해체가 다소 느슨한 콜렉티브 형식으로 작업을 도모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렇게 수시로 행해지는 예술가들의 협업의 유형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 과정에서 구현되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기실 ‘협업’이라는 대상 자체가 정형화된 개념어가 아니며,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창작유형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흔히 통칭되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언어는 사용되는 지역이나 분야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지시한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협업’의 사적(史的) 고찰이나 정의의 규정과 같은 개념적 측면에 함몰되지 말고, 느슨하고 유연한 개념적 토대 위에서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업의 측면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의에서 개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동시대적 협업의 역사

고전적인 유형의 협업(도제식)과 동시대적 유형의 협업
모더니티에서 포스트 모더니티로 전환 - 개념적, 양식적 전환
가장 흔한 형태의 협업 - 듀오 작업

2. 규모의 확장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국제미술행사 급증
비엔날레를 비롯한 국제미술행사의 대형화와 작품의 대규모화

3. 기술적 수요에 의한 협업

미디어아트와 대두와 기술적 진보
공공미술(+미디어아트)의 확산

4. 협업의 유형과 핵심

협업 자체가 창작의 중요한 동기인 경우 (행동주의)

듀오창작

작품 제작을 위한 기술적 협력관계

기술적 분업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집단 창작 (Exit의 사례)

5. 지역미술의 토대에서의 협업

지역의 (젊은) 작가들의 사례 : 지역 어젠다의 수용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가해지는 압력

무엇을 위해서 협업할 것인가?

미술의 공공성이란?

정현(인하대 교수, 미술평론가)

사전적 정의로 공공성은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된 성질을 뜻한다. 우리는 흔히 공공성을 공통의 자산이자 가치로 인정하여 사회 구성원이 보호하고 가꿔야 할 이념으로 여긴다. 그러나 아무리 순수한 의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극단적 이상주의의 모습을 띠게 되면 이때의 공공성은 폭력의 형태로 변질된다. “그러므로 공공성이란 결코 완성을 모르는 이념이자 실천이다.”¹⁾ 그래서 공공성이란 반드시 정의로운 것도 옳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결정된 형태를 갖지 않기에 무엇을 따르기 전에 그것에 대한 탐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미술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시대와 이념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중 근대적 공간 개념에 입각하여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분리할 경우 미술의 공공성을 대표하는 개념은 공공미술일 것이다. 이 용어는 우선 공적 쓰임새를 가진 오브제를 비롯해 기념비, 조각 공원, 야외 미술제, 공동체 미술과 사회적 태도와 정치적 관점의 저항 운동까지도 포함한다. 이 수많은 양태들은 무엇보다 한국 미술이 걸어온 궤적에서 나타난 공공성의 유형들이다. 1980년대 민중미술이 야외에서 작업을 선보이면서 공공장소를 정치적 이념의 장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대지미술의 영향을 받은 자연미술은 공공성을 정신과 명상의 대상으로 치환하여 자연과 치유라는 가치를 드러냈다. 공공성은 실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 관습이자 무엇보다 제도적 틀이기도 하다. 이른바 미술 공공성 또는 공공적 태도의 미술이란 대개의 경우 화이트큐브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반드시 장소의 성격과 형태에 기인하는 건 아니다. 미술에 있어 장소를 사용하는 방식과 의미화는 공공미술에 이르러 제도화에 안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렇다고 미술의 공공성이 공공미술에 의하여 실현되거나 실천되었다는 건 아니다. 한국에서의 공공미술 개념은 과거 공적 영역 또는 야외에 위치한 미술을 장식품의 개념에서 탈피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는 제도가 미술의 공공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삼았다. 그럼에도 미술 작업이 장소에 개입하자 ‘자연스레’ 미술에 의하여 장소성이 생산된다는 착시 혹은 관용적인 의미들도 함께 생산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미술의 공공성은 결국 미술의 장식적 효과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혹은 그러한 가능성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처럼 한국의 공공미술은 특화된 정책에 의하여 제도권의 예술이 되고 말았다. 이 경우 미술의 공공성은 말 그대로 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마을 가꾸기, 도시 재생, 공동체 복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으로 고정되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술의 공공성을 다시 써야 한다. 공공미술을 장소 특정화한 스펙터클의 함정과 정치적 예술

1) 김향, 『정치의 입계, 공공성의 모험』, 9쪽

의 전형적 담론에서 벗어나 한나 아렌트가 주목한 것처럼 공적 영역에서 예술을 통하여 개인의 말과 행동이 살아나게 만들자는 주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도, 예술가의 예고, 아니면 이념일까? 자크 랑시에르의 『해방된 관객』, 권미원의 『장소 특정적 미술』은 관객의 능동적 참여, 관계 미학 등이 낭만적인 유목주의로 현실을 벗어나려는 태도를 비판한다. 과연 모든 게 평등한 상태에서 공공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 예술 홀로 현실을 앞서간 건 아닐까?

남겨진 시간 : 미래의 기록

전리해(2017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참여작가)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꼼꼼히 기록한다. 누군가는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현장에 나가 시위를 하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물구덩이에 갇힌 물고기를 구조하고 멸종위기종 안내표지판을 세우고 있다. 하는 일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모두가 분하고 안타까운 마음인 건 똑같은 것이다.

보다

강정고령보와 그 주변은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해당 장소를 단지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인식하게 한다. 인간에 의한 직접 경험 없이 자전거길, 유람선, 오리배, 바이크 등 단어나 이미지에 의한 매개를 통해 경험되는 공간이다.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익명의 다수에 의해 공유되는 단일한 정체성만을 경험할 뿐이다. 스펙타클한 (산업) 건축물과 자연(낙동강, 금호강, 달성습지)에 대한 폭력성과 배제성이 존재하는 양면적 공간이다.

듣다

두 큰 강이 만나서 빚어낸 달성습지는 얇은 강물과 드넓은 모래톱이 아름다웠던 곳으로 야생동식물들의 산란 및 서식처 역할을 하는 야생의 공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반강제적 규율이나 지식을 내세워 공간을 지배하였고, 그 전략에 맞서 지역 시민과 환경단체들은 실천(시위, 환경보호 활동, 퍼포먼스)을 통한 공간의 전유로 대응하였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고 말한다.

강정고령보 옆 달성습지를 여러 번 답사하며 습지의 원시성과 강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에 매료되기도 했다. 그중 내가 주목한 것은 폐쇄형 습지인데 이곳은 내부로 들어가는 길이 따로 없으므로 인터넷으로 검색한 짧은 텍스트나 낚시꾼 혹은 짐승들이 지나간 흔적을 힌트 삼아 들어갈 수 있었다. 땅을 뒤엎어 흙을 파내고 그 위에 포장하고 건축물을 세우는 과정에 묻혀버린 수많은 생명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곳에 남겨진 시간을 기록함으로써 강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그 안에서의 예술적 실천(변환, 이동)을 통해 관람자는 귀로 듣고 냄새 맡고 깊이 생각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번 미술제에 바라는 점은 작품이 물질적 속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비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가령 어떤 행위들에 참여할 때 생겨나는 감정, 특정 장소에 처해있음으로써 느껴지는 감정들도 작업이 되는 것이다. 현대미술제가 열리는 강정고령보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재인식하는데 대구 현대미술제가 유용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한다.

지금, 여기 _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수정(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장)

처음 이 발표 주제를 들었을 때, 왜 아직도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부터 들었다. 한동안 열심히 이 주제에 대해 매달리며, 한국 근현대미술사 전시와 담론, 교육 등을 통해 연구하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주제에 대하여 더 이상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었는데, 아마 현장에서 작가들을 만나고,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명확한 언어로 설명하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주제어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시대적 변화에 대한 추이를 개인적 혹은 동시대적 상황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정직한 행보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통해 처음 가졌던 의문에 대한 답을 모두,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 다만 여기서 개인은 자연인이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라는 범주로 한정한다.)

1. 정체성은 무엇인가?

사회와 개인/ 자아와 타자 - 구분과 유기적 결합성

2. 왜 한국현대미술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해 왔는가? 그리고 그 의미와 영향은?

서양 "보편세계" - 동양 "타자의 표상" / 동일시와 저항의식

예술가 : 개인의 정체성과 시대적 요구 사이의 갈등과 순응

3. 대구 지역/ 강정에서 정체성에 대한 언급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피 묻은 빗자루 : 다양한 답변이 가능한 시대에 소환된 규정의 노력

4. 지금, 여기 _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참여자들의 답으로.